

보성군,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4년 연속 1등급 '유일무이'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종합청렴도평가 '4년 연속 1등급' 최초·최다 기록

보성군은 23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한 '2025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4년 연속 대한민국 최고 등급인 1등급을 달성하며 전국 최정상급 청렴 선도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고히 했다.

이번 평가는 전국 70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4년 연속 1등급을 달성한 지자체는 전국에서 보성군이 유일하다.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평가 결과 발표에 따르면 보성군은 청렴체감도(81.7점), 청렴노력도(94.9점)로 종합청렴도 1등급의 평가를 받아 4년 연속 부동의 1등급을 지켜냈다.

보성군 종합청렴도는 전국 기초자치단체(218) 평균인 78.2점보다 8점 높은 86.2점으로, 전국 최고 수준임을 수치로 입증

했다.

특히, 청렴노력도 부문에서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 기반 마련, ▲청렴 교육 실효성 제고, ▲부패 유발요인 정비, ▲부패 방지 제도 구축 등 4개 평가 항목 모두에서 만점을 획득했다. 이는 기관장의 강력한 반부패 추진 의지와 함께 부패 취약 분야를 중심으로 한 집중적·체계적 개선 노력이 높은 평가로 이어진 결과다.

행정서비스를 이용하는 군민, 민원인, 직원 등이 평가하는 청렴체감도 부문에서는 전년 대비 1.5점 상승한 81.7점, 청렴정책 추진 성과를 평가하는 청렴노력도 부문에서는 전년 대비 3.5점 상승한 94.9점을 기록하며, 정책 효과와 체감 성과 모두에서 의미 있는 상승세를 보였다.

보성군은 2025년 한 해 동안 △공직자 청렴 실천 결의 및 서약, △청렴해피콜 운



영, △다양한 청렴 교육 및 청렴콘서트 개최, △외부 익명 신고 접근성 강화를 위한 QR코드 제작, △청렴군민감사관 제도 운영 등 현장 체감형 청렴 시책을 지속 추진하며 청렴 문화를 조직 전반에 확산해 왔다.

보성군은 "4년 연속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은 청렴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한마음으로 실천해 온 보성군 공직자와 군정을 믿고 응원해 주신 군민 여러분이 함께 만들어 낸 기적"이라며, "앞으로도 군민에게 신뢰받는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통해 보성다운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보성/김운기 기자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지역의 차별화된 인구정책들이 올 한 해 정부와 도 단위 각종 평가에서 다수의 성과를 거두며 한층 성장한 행정 역량을 뽐냈다.

군은 그동안 추진해 온 인구 시책이 전국 지자체와의 경쟁 속에서 7개 기관과 단체로부터 표창을 수상하고, 국·도비 90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인 '고흥스테이'는 대한민국 대표 귀촌 동지로 자리매김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뉴스1이 주최한 '대한민국 지방지킴 혁신대상' 인프라 개선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귀농귀촌

고흥군, 2025년에도 돋보인 인구정책 성과 '붐물'

기관·단체 표창 7개 수상, 국·도비 90억 원 확보

통합 플랫폼 평가에서 전국 유일 3년 연속 수상의 자력을 과시했으며, 산업정책 연구원 주관 '대한민국 브랜드 명예의 전당'에서는 7년 연속 수상과 전라남도 주관 '귀농어귀촌 평가' 2년 연속 최우수상 수상이라는 위업을 달성했다.

일자리 분야에서도 고용노동부 주관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에서 우수상을 수상했으며, 군이 직접 지원하는 기업과 단체 역시 고용노동부·한국사회적경

제진흥원 주관 '사회적경제 투자유치 부문' 대상과 전라남도 주관 '마을공동체 활성화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귀농귀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국·도비 공모사업 유치도 활발히 추진해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지난해 전국 최대 규모인 160억 원을 확보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올해 평가에서도 S등급 받아 88억 원을 확보했으며, 2년 합산 248억 원으로 전남 1위, 전국 2

위를 차지했다.

또한, '권역별 공공임대주택 500호 조성'의 일환으로 전남형 만원주택, 청년 공공임대주택, 스마트영농빌리지 등 다세대형 주택을 조성하고 있으며, 농어촌 빈집을 활용한 소규모 주거 공간 확충을 위해 전남도 공모사업비 2억 5천만 원을 확보해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올해 법무부로부터 사회통합 프로그램 지역학습관으로 공식 지정받아 관내 외국인의 사회 적응과 이민을 돕는 교육을 매주 운영하는 등 전방위적 인구 유입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고흥/박도일 기자

광양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지난 19일 백운산자연휴양림에서 여성일자리 창출과 취업 지원 강화를 위해 여성일자리 유관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유관기관 종사자 24명이 참석해 여성 고용 정책 현황을 공유하고, 여성일자리 지원을 위한 기관 간 협력 방향을 모색했다.

행사는 ▲광양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

광양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여성일자리 유관기관 종사자 워크숍

유관기관 네트워크 활성화로 여성일자리 지원체계 강화

영 현황 소개 ▲기관 간담회 ▲종사자 소통 역량 강화 교육 ▲힐링 프로그램(목재문화체험) 순으로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현장의 다양한 과제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문광미 센터장은 "여성일자리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간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여성 일자리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양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1:1 맞춤형 취업 상담과 취업 정보 제공, 직업교육훈련, 새일여성인턴십 운영 및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타 취업 관련 문의 사항은 광양여성새로일하기센터(☎ 061-797-1970~1976)로 문의하면 된다. 광양/신선호 기자

장흥군은 지난 19일 전라남도에서 주관한 인구정책 우수 시·군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군(장려상)으로 선정되었다.

2025년 인구정책 참여와 발걸음 대상으로 시행한 이번 평가는 전남도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인구문제 극복 노력도, 추진 성과, 발표심사를 통해 진행되었다. 장흥군의 우수 사례는 2건으로, 군민과

장흥군, 2년 연속 '인구정책 우수군' 선정

함께하는 농산어촌 유학마을 조성과 전입세대 희망 주거비 지원 사업이 성과로 인정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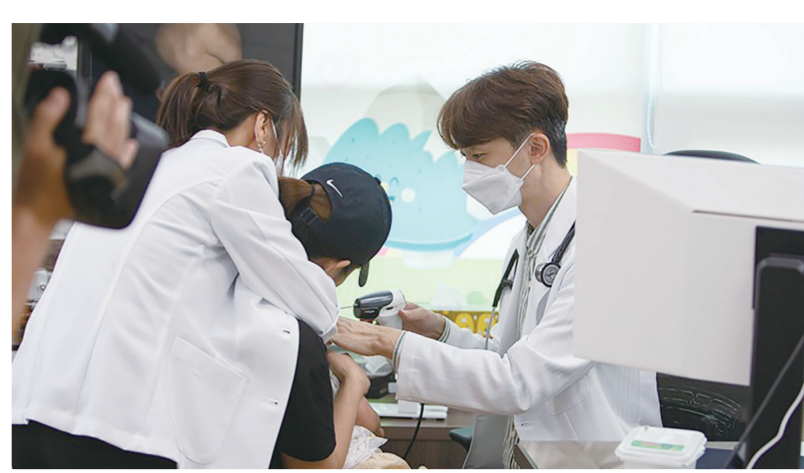
이번 사업으로 군은 농촌 활력 촉진과 전입자 수가 해마다 증가한 점이 높은 평

가를 받았다. 장흥군의 인구 유입을 위한 대표적인 시책으로는 ▲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 ▲민간 산후조리비 지원 ▲결혼장려금 지급 ▲출산장려금 지원 등이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 할 계획이다.

장흥군 인구청년정책과 관계자는 "우수 시책을 널리 공유하고 분석해 지속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고, 맞춤형 인구정책 수립으로 '아이 키우기 좋고 청년이 머무르며 평생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장흥군 계공



영암군, 이동 장터·빨래방 모금도 인기

소아청소년과 운영비 고향사랑기부 전국서 주목

영암군(군수 우승희)의 고향사랑 지정기부 '2026년 소아청소년과 운비 모금'이 목표액을 162% 초과 달성하며 전국의 관심을 받았다.

지난해 10월부터 모금에 들어간 이 지정기부의 목표액은 4억 7,900만원이다.

올해 12월 18일 현재, 총 기부금액은 7억 7,800만원이 모금됐다.

영암군 소아청소년과는 2024년 8월, 20년 만에 다시 문을 열어 고향사랑기부금 등으로 운영돼 왔다.

개원 이후 올해 12월까지 3,000여 명이 넘는 영암 소아청소년이 진료를 받는 등 지역 의료 공백을 해소해 왔고, 전국 고향사랑기부자들의 꾸준한 기부로 운영 취지를 공감받아 왔다.

영암군은 이번에 지정기부된 운영비를 2026년도 소아청소년과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활용하고, 2027년 운영

비 모금에도 착수했다. 아울러 이달 3일부터 새로 시작한 영암군의 2건 추가 고향사랑 지정기부도 인기다.

시골 어르신 식품 구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동네방네 기잔장터 운영비'는, 마을까지 식료품과 현금자동출납기를 실은 차량이 찾아가 장을 볼 수 있게 만드는 사업을 위한 모금이

다. 3,000만원 목표인 이 지정기부는 개시 15일 만에 2,000만원을 넘길 정도로 주목을 끌고 있다.

마을까지 세탁차량이 찾아가는 '기찬이동빨래방 운영비' 모금은, 1억 2,000만원이 목표로 현재 2,000만 원을 모았다.

두 사업 모두 전국 고향사랑기부자들의 관심을 끌며 조기 마감에 예상되고 있다. 영암/김희선 기자

화순군, 읍·면, 유관기관 참여 통합돌봄 통합지원회의

개인별 지원 수립계획 타당성 점검으로 현장 중심 통합돌봄 강화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지난 22일 통합돌봄 대상자에 대한 개인별 통합지원 수립계획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점검하기 위해 통합지원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대상자의 실제 욕구에 맞는 지원이 적절히 반영되었는지 살펴보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추가 서비스와 보완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화순읍·능주면·도곡면·이서면·동북면·동면 등 6개 읍·면 담당자를 비롯해 국민건강보험공단 화순지사 담당자, 보건소 담당자, 맞춤형돌봄 수행기관 종사자, 긴급돌봄 수행기관 관계자 등 통합돌봄 관련 실무자와 현장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개인별 지원 수립계획이 대상자의 욕구와 생활 여건에 부합하는지, 추가로 보완이 필요한 서비스는

무엇인지 등을 중심으로 다각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계획의 적정성과 현장 적용 가능성을 점검하며,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의료·돌봄·복지 서비스가 개별적으로 제공되기보다 대상자 중심으로 유기적인 연계가 필요하다는 데 참석자들의 공감대가 모아졌다. 복지서비스뿐만 아니라 보건·의료분야와의 연계가 원활하게 논의되며, 통합돌봄의 취지와 방향성이 더욱 분명해졌다.

회의에 참석한 실무자들은 "현장의 다양한 시각이 모여면서 개인별 지원계획의 완성도가 높아졌다"라며, "보건·의료와 복지가 함께 논의되는 구조가 매우 의미 있었다"라고 말했다.

화순/김종환 기자

